

“통일이 눈 앞에 온 듯...죽기전에 북녘 고향 가고 싶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보는 실랑민·새터민들

“이산가족 상봉 수 1000명 이상으로 늘리길”

명상엽 전 이북5도 연합회장

명상엽(88·광주시 서구 양동) 전 이북5도 연합회장은 18일 전용기를 타고 북한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보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광주시 서구 양동양호초등학교에서 정상회담을

담을 지인들과 함께 TV로 지켜본 명씨는 “문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면서 감격스러워 했다.

명씨는 이번 3차 정상회담이 단순한 ‘만남’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남북관계 진전으로 이어져 많은 실랑민들이 고향 땅을 밟을 수 있기를 기대했다.



명씨는 “전국에 5만6707명의 이산가족이 있다. 아직도 가족의 생사조차도 확인하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라면서 “이들은 고향자들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자 수를 100명에서 1000명 이상으로 늘리는 논의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평양 시민 열렬한 환대에 고향 생각 더 나”

김성연 함남도민회 광주지부 회장

지난 17일부터 인천에서 열리는 한 행사에 참여중인 김성연(85·광주시 북구 중흥동) 함경남도 도민회 광주지부 회장은 18일 회의장에서 TV속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려명거리에서 평양 시민 수만명의 열렬한 환대를 받고 있는 모습을 지

켜본 뒤 “믿을 수가 없다. 통일될 날도 멀지 않은 듯 하다”며 들뜬 모습을 보였다.

김 회장은 함경남도 정평군 출신인 김 회장은 고등학교 2학년 때인 지난 1950년 여행 도중 전쟁이 발발하면서 한국에 내려왔다.

김씨는 “68년이 지났지만 단 하루도 고향인 함경남도 정평군 광덕면 양죽리에 대



한 기억은 잊은 적이 없다”면서 “최근 추석이 다가오니 괜히 더 고향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김씨는 “남북 정상회담 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렸다”면서 “최근 남북관계가 순풍이 불면서 최근 잇따라 열린 정상회담 소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통일의 기대감이 크다”고 활짝 웃었다.

“北 가족과 전화통화라도 할 수 있었으면”

남유정 한라·백두평화통일연대 대표

18일 TV를 통해 북한 모습을 본 새터민 단체 ‘한라·백두평화통일연대’ 남유정(여·42) 대표는 말을 잊지 못했다.

남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소식을 듣고 어젯밤 북한에 가서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을 만나는 꿈을 꿴다”며 “평양 순안공원은 많이 달라졌지만 문 대통령이 차를 타고 스쳐 간 평양과학기술대학

등은 기억 속 모습과 똑같아 더욱 애뜻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남 대표는 지난 2005년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건너온 새터민이다. 남 대표는 “지난 북미정상회담 때 빨리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였던 정전협정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이 서글프다”며 “통일은 미국이나 중국 등 외세보다는 남북 당사자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남 대표가 바



라는 것은 가족들이 알 수 있는 소통창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남 대표는 “이산가족 상봉이 정례화되면 좋겠지만 북에 있는 가족들과 전화통화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남북 정상회담으로 꿈처럼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 서구 주민도 군공항 소음피해 배상 받아

광주고법 화해권고 결정 확정

4654명 1인 평균 297만원

광주 군 공항 인근 일부 서구 주민들이 광산군 주민에 이어 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받게 됐다.

광주고법 민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서구 마북동, 서창동, 차평동 일부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화해 권고 결정 확정판결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돼 민사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로 배상금을 받는 주민은 소음도 85데시벨(WCEPNL)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4654명이며, 배상금은 총 137억 6000만원이다. 1인당 평균 297만원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이들에게 대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고, 주민과 정부 양측이 이날까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이대로 확정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번 소송에 참여한 나머지 주민 3만 2000여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진행 중이다.

서구 주민 3만7000여명은 2007년 11월 광주 군 공항 소음 피해 소송단체를 구성하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올해 4월 광주 군 공항은 도심 공황이기 때문에 소음 피해가 인정된다며, 소음도 85데시벨 이상 주민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군 공항 인근 광산군 주민 8810명이 306억원을 배상받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상회담에 쏠린 눈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18일 광주시 서구 유스퀘어 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는 모습을 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용섭 시장 ‘당원 명부 유출’ 무혐의...선거법 위반 굴레 벗어나

검찰, 강기정 전 의원도 무혐의 민주당 전 간부 등 2명은 약식기소

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8일 “이용섭 광주시장의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은 강기정 전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시장은 2017년 12월 21일 당원 명부 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하고, 다음 해 1월 12일 당원 10만2045명에게 사해 인사 문자메시지를 발송(공직선거

법 위반)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강 전 의원은 당원 명의 없이 당원명부를 얻어 2017년 12월 31일 당원 3만73명에게 사해 인사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검찰은 이용섭 시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은 당원명부 취득 과정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문자발송 시기, 횟수(1회), 사해인사 형식의 문자를 보낸 점 등으로 볼 때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각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6호에서 “실질, 추측 등 명질 및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다만 당원명부를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민주당 광주시장 전 조직국장 류모(57)씨 등 2명을 약식 기소했다. 류씨로부터 당원명부를 받아 문자를 보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이 시장의 비서 이모(37)씨에 대해서도 “건네 받은 명부자료가 불법적으로 유출된 것임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의붓딸 추행 40대 신학대생 구속

전주지검 형사1부는 “의붓딸을 10여년간 상습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모신학대학교 학생 A(49)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의붓딸(당시 9)을 성추행하는 등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추행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과 함께 중국 선교여행을 간 뒤 숙소에서 추행을 일삼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친과 쌍방폭행 가수 구하라 명 자국에 봉대 감고 경찰 출석



남친과 쌍방폭행 가수 구하라 명 자국에 봉대 감고 경찰 출석

구하라(27)씨가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

구씨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도착해 “누가 먼저 때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추후에 밝혀질 문제”라면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변. /연합뉴스

는 ‘실질, 추측 등 명질 및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다만 당원명부를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민주당 광주시장 전 조직국장 류모(57)씨 등 2명을 약식 기소했다.

류씨로부터 당원명부를 받아 문자를 보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이 시장의 비서 이모(37)씨에 대해서도 “건네 받은 명부자료가 불법적으로 유출된 것임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2018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수시	정시
인문	신학과	30	16	
	한국어교육학과	3	1	
사범	유아교육과	8	2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위교육상담학 전공)	31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7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교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9. 10(월) ~ 14(금) • 전형일 : 2018. 9. 28(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2. 29(토) ~ 2019. 1. 3(목) • 전형일 : 2019. 1. 10(목)

대학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신학과(Ph.D.)	6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신학과(Th.M.)	25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학과(M.S.W.)	2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10
		한국어교육학과(M.Ed.)	20
국제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추후 공지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사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